포스트-인더스트리얼 사이트 공원화와 숭고의 미학

이명준* · 배정한**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학 전공 · **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Ⅰ. 머리말

이미 우리는 새로운 실험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감각을 선사하는 공원들을 마주하고 있다. 특히 근대의 개발 산물인 산업 구조물에 공원이라는 생명을 다시금 불어넣는 포스트-인더스트리얼 사이트의 공원화는 하나의 설계 경향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포스트-인더스트리얼 사이트 공원화에 대한 비평적 담론은 주로 이들 공원이 주는 독특한 미적 쾌감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각적 체험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동시대 조경 설계 실천을 미학 내에서 어떻게 논의할 수 있는가? 전통적인 미적 범주인 '미'로 선유도 공원의 미적 특질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포스트-인더스트리얼 사이트 공원화에 관한 기존 연구 중 '숭고'라는 미적 범주로 이를 해석하고자 한 시도들이 있다[1]. 숭고(sublime)는 최근 예술 전반에 있어서 다시금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개념으로, 고대에 있어 신적인 높은 곳이나 영혼의 고양을, 근대에는 무질서하고 불명료한 대상들에 의해 촉발되는 고통과 쾌락의 감정을, 현대에는 회화의 재현 불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여 왔다(배정한, 2005; 안성찬, 2004). 다시 말해, 숭고는 견고하게 구축된 전통이 고착되었을 때 그것에 균열을 일으키고 재고하게 하는 대안적 용어로서 역사적으로 그 의미를 다르게 해왔다. 포스트-인더스트리얼 사이트의 공원화를 숭고로 독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미학적 담론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동시에 거시적으로는 동시대의 미학적 지평 내에 조경을 초대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기존의 연구가 현대 조경설계 전반에 걸쳐 숭고의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면, 현대 조경 설계의 구체적 성과물과 설계 실천 행위에서 숭고함의 계기를 발견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숭고의 미학 내에 포스트-인더스트리얼 사이트 공원화를 위치시키기 위한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먼저 조경에서 숭고의 개념이 논의되었던 역사로 소급하여 조경사 내에서 숭고의 미학의 흔적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포스트-인더스트리얼 사이트의 공원화를 숭고의 범주 내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Ⅱ. 조경에서의 숭고의 역사

역사적으로, 숭고한 대상은 자연이었다. 근대에 이르기까지 숭고는 자연의 무시무시함과 거대함에서 오는 외경심이나, 자연의 재앙과 위용에서 촉발되는 불쾌와 그로부터 적당한 거리에서 있다는 안도감으로 얻게 되는 쾌의 복잡한 이중적 감정을 의미했다. 그런데 조경의 역사는 자연에 관한 역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조경사에서 숭고의 미학은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가? 조경의 역사에서 숭고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점은 숭고한 자연의 모방인 회화를 실제 공간에 재모방하는 조경 실천이 보편화된 18세기 픽춰레스크 시기에 이르러서이다.

1. 낭만적 픽춰레스크

조경에 있어서 픽춰레스크는 18세기 영국에서 유행하였던 풍경화를 모방한 정원 양식을 뜻한다(김진희, 1995). 영국의 경험 철학의 전통에서 서술된 버크(Edmund Burke)의 〈숭고와 아름다움의 이념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탐구(1757)〉는 픽춰레스크 미학과 긴밀히 연동되어, 당시 지성계에서 픽춰레스크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도왔다. 위의 저서에서 버크는 '미'는 질서와 조화, 명료함 등을 속성으로 하는 대상에서 경험되는 것이며, 반면 '숭고'는 무질서하고 형식이 없으며 불명료한 대상들에 의해 촉발되는 강렬한 감정이라 하였다(안성찬, 2004: 94, Burke, 1757). 헌트(John Dixon Hunt)와 오병남 등에 의하면 픽춰레스크는 고전적 픽춰레스크과 낭만적 픽춰레스크로 분류될 수 있다(김진희, 1995: 12). 이 중 고전적인 미적 개념들에서 탈피해 색, 빛, 그림자 등의 요소를 중요시하고 낭만적 풍경화를 정원에 구현하고자 하였던 낭만적 픽춰레스크의 특질들은 버크의 미학 내의 숭고와 미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었다[2]. 또한, 현대 조경 설계에서 숭고의 범주로 종종 포섭되는 야생, 폐허가 18세기에는 픽춰레스크적인 속성이라 여겨졌다. 이처럼 픽춰레스크는 버크의 미와 숭고의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는 특질, 대표적으로 당시 정원에 등장하는 요소인 폐허, 야생의 숲, 구불구불한 길 등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적 용어였다.

픽춰레스크 논의에서 주목하여야 할 지점은 당시까지도 숭

고한 대상이었던 자연의 특질들을 예술이라는 수단으로 '실제 물질적 세계'에 재현 가능함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것에 있다. 동시에 픽춰레스크는 조경을 미학적 담론 내로 편입시키면서 숭고의 범주와 외연을 확장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은 근대 조경가 옴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를 대지 예술의 시초로서 평가했던 로버트 스미슨(Robert Smithson)의 언급과도 그 궤를 같이 한다.

2. 대지예술의 사상적 연원

대지예술가이자 이론가인 로버트 스미슨은 근대 조경가 옴스테드를 자신의 개간 프로젝트의 원천이라 언급한 바 있다[3]. 그렇다면, 스미슨이 픽춰레스크를 미와 숭고의 변증법적인 것이라 해석하고 픽춰레스크적 풍경을 뉴욕에 구현한 한 세기 이전의 조경가 옴스테드를 대지예술의 선구자로서 추앙한 연유는 무엇인가? 첫째로, 픽춰레스크가 물질세계에 구현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미슨은 인간이 자연의 숭고함과 아름다움을 재현할 수 있고 이것이 형이상학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 세계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자연을 다루는 공간 예술인 조경 설계의 본질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둘째로, 옴스테드의 센트럴파크는 19세기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기에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가상의 자연을 재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스미슨의 개간 프로젝트는 "산업 자본주의가 불러 온 환경오염과 자연 경시에 환경적·심리적 변화를 가져오고자"한 것이며(이재은, 2009: 172), 이는 옴스테드가 뉴욕에 센트럴파크를 조성한 맥락과 다르지 않다. 또한 16세기 본파디오가 정원을 "예술과 통합된 자연, 제3의 자연(una terza natura)[4]"이라 부른 연유와도 일부 맥락을 같이 한다. 스미슨의 작업은 제 3의 자연을 실재화한 것이자 이를 통해 자연의 절대적인 힘, 치유력을 드러내려 한 것이다. 산업 자본주의가 불러온 환경오염에 예술을 통해 자연의 힘을 다시금 보여주는 것, 이것이 숭고함의 계기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5].

3. 생태학의 타자로서의 예술로서의 조경의 역사

앞서 살펴보았듯, 조경의 역사에 있어서도 숭고가 논의되어 왔다. 18세기 낭만적 픽춰레스크라는 미적 범주로, 1970년대에는 대지 예술의 사상적 연원으로서 숭고의 논의는 계속되어 왔다. 그렇다면 포스트-인더스트리얼 사이트의 공원화에서도 숭고의 계기가 발견되고 있는가?

이에 앞서, 우선 우리는 가까운 조경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현대 조경사에는 1970년 4월 지구의 날이 처음 제정된 이래로 지속되어온 '생태로서의 조경'과 '예술로서의 조경'이 대립하였던 역사가 있다. 전자는 이안 맥하그(Ian McHarg)의 언명에 의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토질, 수계, 식생 등을 레이어링하여 적지를 분석하는 접근법을 따른 계획 및 설계가들이었으며, 후자는 피터 워커(Peter Walker)와 같이 조경설계가 하나의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조경가들로, 설계의 개념과 발전 과정에서 현대미술의 어휘와 전략을 이용하려 하였으며 실제로 이들은 1970년대 대지예술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조경의 예술적 가능성을 실험했다(Meyer, 2001). 이 둘 사이의 심연에 가교를 놓은 설계가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사실상 1970년대 이후의 조경 설계는 맥하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배정한, 2004: 65-84). 이는 인류의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된 대지를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었으므로 조경계에 생태라는 아폴론적 이성이 요청되었던 필연적 역사라 해석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생태적 조경의 우세는 파괴의 해독제로서 자연의 치유력을 보여줘야만 하는 조경의 본질적 임무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듯 조경의 역사에는 과학 기술을 위시한 생태로서의 조경이 예술로서의 조경을 타자로서 인식한 역사가 있었다.

Ⅲ. 포스트-인더스트리얼 사이트 공원화에서의 숭고의 계기

한동안 타자로서 여겨져 온 예술로서의 조경이 최근 다시금 부활하고 있다. 이 중 포스트-인더스트리얼 사이트 공원화는 공원 설계의 하나의 양식으로 굳어질 만큼 유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이들 공원은 비평적으로도 호평의 세례를 받고 있다.

이제 위의 논의를 토대로 포스트-인더스트리얼 사이트 공원화에서 숭고의 계기를 발견하고자 한다. 시낭송에 의해 자아가 고양된 상태를 의미하며 교훈적 유용성이 강조되었던 고대의 숭고[6], 순수한 생리학적 의미로 축소되었던 근대적 의미의 숭고, 회화의 재현 불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드러났던 현대적 의미의 숭고 등 숭고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부단히 변모해왔다. 따라서 포스트-인더스트리얼 사이트 공원화에서 숭고의 계기를 발견하는 것 역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보일 것이다.

1. 자연의 치유력을 현시함으로써 드러나는 숭고

포스트-인더스트리얼 사이트 공원화에서 숭고의 논의는 무엇보다도 생태로서의 조경과 예술로서의 조경의 변증법적 합으로서 논해져야 한다. 대지예술이 광활한 대지 위에 행하였던 자연의 웅장하고 거대함의 위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인더스트리얼 사이트 공원화에서의 숭고는 생태적 수단으로 소생된 자연의 위대한 치유력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계기가 발견된다. 조경은 기본적으로 공간을 다루는

예술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고대부터 숭고함을 드러내는 대상이었던 자연의 치유력을 다시금 이 삭막한 도시에 드러내야하는 도덕적 사명감을 지녔다. 인류의 욕망을 기꺼이 포용하고 자본주의의 학대를 묵묵히 받아주었던 인고의 대지의 치유력이 예술과 생태학을 경유하여 현재의 우리에게 다시금 체험되고 있다. 포스트-인더스트리얼 사이트 공원화에서의 숭고는 우리에게 자연의 위대한 치유력을 보여줌으로써 잘못된 역사의 반복을 저지하는 교훈적 기능을 가진 고대 그리스의 비극과 같다.

2. 새로운 감각적 체험으로서의 숭고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사이트의 공원에서 주체에게 수용되는 새로운 감각 역시 숭고의 범주에서 논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의 미학적 전거는 버크의 생리학적·심리학적 접근에 있다. 즉, 숭고한 특질을 가진 대상이 주체에게 감각적으로 체험됨으로써 촉발되는 감정을 숭고의 개념으로 재발견하는 것이다.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사이트 공원에서의 새로운 감각을 가능케 하는 것은 장소성을 드러내어주기 위해 다양한 물성을 사용하는 설계 전략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거칠게 하고 추악한 산업 시설물을 그대로 드러내는 전략의 결과로, 날것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덧없이 산화되는 금속은 어떤 보이지 않는 진귀한 접착력으로 녹색의 식물들과 끈끈하게 붙어있다. 이는 주체로 하여금 과거적 기억만 반복적으로 환기시키는 노스탤지어의 개념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또한 18세기 낭만적 픽춰레스크의 폐허의 감수성과 온전히 같지는 않다. 이 새로운 감각은 옛 것에 대한 향수라기보다 오히려 산업구조물의 잔해에서 다시금 발현되는 진귀한 생명력이며, 낯설음으로부터 발생되는 불쾌가 일시적으로 지나간 뒤에 곧바로 찾아오는 환희라는 감정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감각적 체험에 도취되고 있다.

3. 시간성 체험을 매개하는 것으로서의 숭고

포스트-인더스트리얼 사이트 공원화 설계 전략의 핵심은 옛 산업 구조물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드러내기 전략은 옛 것과 현재의 것, 그리고 미래의 것이 기묘하게 동거하는 시간성의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해석의 미학적 전거는 리오타르(Jean-Francois Lyotard)를 비롯한 현대 미학자들의 '재현 불가능한 것의 제시'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여러 시간대를 한 공간 내에서 동시에 체험하게 하는 것의 불가능성을 공간 내에 재현하려는 시도는, 공간 내에 시간성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성찰임과 동시에 시간성 자체에 대한 사유이기도 하다. 산업구조물이 대지에 가한 폭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대지의 치유력은 위대한 힘으로 우리를 압도하고 이윽고 도취시킨다. 시간의 몽타주의 간극 내에 놓인 심연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그 경계에서 일어나는 시간성의 체험으로 인해 시간들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진다. 본질상 불가능한 다른 시간대들의 동거는 재현 불가능한 것의 제시로서 공원에 구현되면서 전통적인 시공간 개념을 파괴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포스트-인더스트리얼 사이트 공원이 매개하는 시간성 체험은 숭고하다.

Ⅳ. 맺음말

포스트-인더스트리얼 사이트의 공원화 뿐 아니라 현대 조경설계의 다양한 실험들의 성과물이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성과물을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언어를 요청받고 있다. 숭고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있는 새로움의 맹아가 이 요청에 응답해 주기를 기대한다. 물론 숭고는 하나의 유행일 수 있다. 숭고의 미학을 현대 조경 설계 담론으로 이끄는 것 또한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조경 설계의 다양한 현상들을 숭고라는 이름으로 환원시킬 위험 또한 도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분야의 담론들을 흡수하고 또 다시 우리 내의 고민들과 새로운 현상들을 다른 영역에 끊임없이 분출함으로써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과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부단히 응시해야만 한다.

> ... "숭고"의 문제는 제시의 문제다. ... 제시에 대한 질문은 본질 그 자체가 아니라 본질의 경계선상에서 벌어지는(따라서 예술의 "예술"적 본질 그 자체보다 한층 더 "본질적인" 것의 경계선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질문이며 그런 점에서 숭고는 미에 대하여 미의 본질 그 자체보다 더 "본질적"이라는 점...(Nancy, 1988: 8)

주 1. 배정한은 현대 조경설계의 성과물들이 관통하는 미학적 지평을 '숭고'로 보고 포스트-인더스트리얼 사이트와 랜드필(landfill)의 공원화를 숭고의 범주로 해석하려 하였으며, 조경진은 지나간 산업화의 뒤안길에서 폐허로 변한 정수장의 흔적에서 느끼는 감정을 멜랑콜리와 숭고미로 해석했다(배정한, 2005; 조경진, 2006).

주 2. 일례로, 프라이스는 픽춰레스크를 객관적인 성질로 간주하여 '거칠음', '갑작스러운 변화', '불규칙함'을 띠는 모든 대상이 픽춰레스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았다(김진희, 1995: 62). 또한, 낭만적 픽춰레스크 이론가인 길핀, 나이트의 픽춰레스크가 숭고의 특질과 유사하다고 지적되기도 한다(Haddad, 1996: 51-52).

주 3. "변증법적 경관의 시초는 프라이스와 길핀의 이론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응답한 옴스테드에게서 시작된다. 버크의 "미"와 "숭고"의 개념은 각각 다음과 같이 기능한다. (미는) 자연의 부드러움, 완만한 커브, 섬세함의 정(thesis)으로, (숭고는) 자연의 공포스럽고 고독하며 거대함의 반(antithesis)으로, 양자 모두 헤겔의 관념론이라기보다 실제의 세계에 토대를 두고 있다. 프라이스와 길핀은 "픽춰레스크"라는 표현으로 합(synthesis)을 제공하고, 이는 자연의 물질적 질서 내의 기회와 변화에 관련한 면밀한 조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 프라이스, 길핀, 옴스테드는 물질적 경관에 적용된 변증법적 유물론의 선구자들이다(Smithson, 1973: 159-160)."

주 4. "정원 문화의 절정기였던 16세기 이태리에서는 정원을 제 3의 정원이라 불렀다. ... 정원은 인간의 손이 전혀 닿지 않은 '제 1 자연'-야생-도 아니고 인간의 실용이나 쾌를 위해 변형된 '제 2 자연-인공-도

아니라 자연과 예술, 감성과 이성이 합일된 문화의 소산인 것이다(배정한, 1998: 97)."

주 5. 물론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려 했던 대지예술가들의 시도의 결과가 전적으로 환경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주 6. 숭고의 교훈적 의미는 근대에 이르러 퇴색되었다가, 19세기 미국에서 청교도의 영향을 받아 그 의미를 되찾는다. 토마스 콜(Thomas Cole) 등의 미국적 숭고의 풍경을 화폭에 담았던 허드슨 강 학파의 작품에는, 잔잔한 호수의 평정심, 신성하고 순결한 처녀지 등 미국적 숭고의 풍경 묘사가 등장한다(Novak, 1972: 36-42).

인용문헌

1. 김진희(1995) 영국 풍경식 정원의 미 '픽춰레스크'에 관한 연구: 미적 개념과 정원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배정한(1998) 조경이론으로서의 환경미학. 한국조경학회지 25(4): 89-106.
3. 배정한(2004) 생태의 그늘. 현대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조경. pp. 65-84.
4. 안성찬(2004) 숭고의 미학: 파괴와 혁신의 문화적 동력. 유로서적.
5. 배정한(2005) 현대조경설계와 '숭고'의 미학. 한국조경학회 2005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45-48.
6. 이재은(2009) 로버트 스미슨의 '개간 프로젝트' 개념에 대한 연구: 〈깨진 원/나선형 언덕〉중심으로.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통권 16호: 169-175.
7. 조경진(2006) 기억의 공간 만들기: 선유도 공원 디자인의 의미. 한국의 공원, Park__scape. 월간 〈환경과 조경〉편. 도서출판 조경. pp. 284- 289.
8. Burke, Edmund(1757) A Philosophical Enquiry into the Origin of our Ideas of the Sublime and Beautiful. 김동훈(역), 숭고와 아름다움의 이념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탐구. 도서출판 마티, 2006.
9. Haddad, Laura(1996) Happening: Paradigms of Light aBlaze(A dialectic of the sublime and the picturesque). Landscape Journal 15(1): 48-57.
10. Meyer, Elizabeth K.(2001) The post-earth day conundrum: Translating environmental values into landscape design. Environmentalism in Landscape Architecture, ed. Michel Conan, Washington, DC: Dumbarton Oaks Research Library and Collection. pp. 187-244.
11. Nancy, Jean-Luc *et al.*(1988) Du Sublime. 김예령(역), 숭고에 대하여: 경계의 미학. 미학의 경계. 문학과 지성사, 2005.
12. Novak, Barbara(1972) American landscape: Changing Concepts of the sublime. American Art Journal 4(1): 36-42.
13. Smithson, Robert(1973) Frederick Law Olmsted and the Dialectical Landscape. Robert Smithson: The Collected Writings, ed. Jack Far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57-171.